한가위 대축일
제 1 독서 : 요엘2,22-24.26a
제 2 독서 : 묵시 14,13-16
복 음 : 루가 12,15-21

숲정이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느님께 감사하여
기뻐 뛰어라" (요엘 2,23).

강 론

"효자 집안에 성인(聖人)났네"

김 진 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오늘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하루 종일 생각하며 지내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신은 보은(報恩)의 마음이란 돌아가신 후에나 갖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해야 한다는 타이름이 앞서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요새 부모님들의 입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 요컨대 갈수록 부모의 지위나 위신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판국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본적도 없고 정(情)도 없는 우리를 후손들이 기억이나 해주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우리 현실이 십계명의 제4계명이 고전적인 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명의 근원과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한다는 말에 별 느낌이 없다면 「명심보감 팔반가팔수」(明心寶鑑 八反歌八首)에 있는 이런 말을 듣는 것도 괜찮겠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 섬기는데 힘을 다하여라. 애당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빼긴 이가 부모가 아닌가." 그러나 부모된 이들도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한다. 예(禮)란 강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말이다. 조상을 공경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심(內心)에 나도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단서가 아니겠는가.

한국 신도들에게 효(孝)의 정신은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효는 박해시대 우리 조상들의 신심의 바탕이었다. 부모는 늘 나와 함께 계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시듯, 하느님을 부모로 믿으면서 부모께 가진 정(情)을 그대로 하느님께 연장한 것이었다. 부모께 바친 효성을 하느님께 승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효자 효녀에게는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지위와 위신이 절대적이었듯이 인류의 대(大)부모이신 하느님은 조상들의 모든 생활을 차지하셨다. 하느님이 한국의 전통문화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한국이 온통 서양 것이 되어도 효의 정신만은 꼭 보존되어야 할텐데. 우리 믿음의 상태가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보은의 정신에 있는지, 아니면 환상적인 곳에 있는지 조상들의 날에 생각해볼 일이다.

소 리

"걱정되고 반갑다"

물가가 50% 올라 있다는 주부들의 여론조사가 알려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야권이 통합되어 그 이름이 '민주당'으로 발표되었다.

하나는 걱정되고 또 하나는 반갑다. 희비쌍곡선이라는 말이 지난날 자주 쓰였던 적이 있지만, 삶은 언제나 얼마만큼의 기쁨과 또 그만큼의 슬픔이 섞여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삶이 갈수록 희망에 차서 삶이 살맛나는 신바람에 불려가야 좋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산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인류역사의 현재 진행이 아니겠는가?

물가가 치솟는 것은 온전히 다 현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책임을 쫀쫀히 물을 수 있을까를 잘 짚어 놓아야 하겠다.

아마도 그 방법을 야권통합에서 시작해서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다.

정보정치의 높은 술수에 얼마간 잘 놀아난 우리 국민의 허영기가 아직은 잡혀지지 못했지만, 그리고 경제적 윤택을 맛본 상당수의 중간계층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에 몰리고 있지만 진리와 정의의 힘을 그래도 믿어주어야만 하겠다는 오기가 아주 우리에게서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추석이 되었으니 좀 겸허하게 들일에 땀 쏟은 저 농촌의 사람들 생각도 하고, 제발 좀 덜 먹고, 덜 사들이고, 덜 나돌아다니고, 그 여력은 더 인간답게 쏟아보자. 인간다운 것이 하느님다운 것이라 했으니 하느님이 어찌 사시는 분인지는 이 자연과 우주를 보고 배우면 되겠다.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소련 정치가들처럼 우리 정치가들도 뉘우치게 하려면 말이다. 정

숲정이 산책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④

"조상 제사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다만 내가 비난하는 것이 한가지 있소. 당신들은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소." 이 말은 병인박해가 발발하기 직전 대원군이 승지(承旨) 남종삼 성인에게 하였던 질문이다. 1791년 진산의 윤지충 사건 이후 조선 사회는 천주교에 줄곧 그런 질문을 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에 앞서 중국에서는 이미 1717년부터 조상 제사의례(儀禮) 문제로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었다. 그러면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금지한 까닭은 무엇인가. 주마간산격이나마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했다. 1583년부터 중국에 선교를 시작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유교 경전을 통달하고 깊이 연마하여 천주교를 중국 상황에 알맞게 적응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선교정책을 중국문화에 적응(適應)하는 적응주의적 방법을 취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 제례의식인 조상 제사와 공자 공경의례는 자녀와 제자가 부모와 스승에게 드리는 효도와 존경의 표현이며 국민적 사회적 의례로 파악하여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반세기 뒤늦게 온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파리외방선교회 등은 예수회의 적응주의를 중국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영합주의라고 비난하며 공격했다. 그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지 않아서 무지한 까닭이었다. 그들은 조상과 공자는 세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봉헌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며 미신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교황청에 예수회의 적응주의를 고발했다.

그리하여 교황청은 1645년 예수회의 적응주의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후 교종(敎宗)에 따라 예수회의 선교정책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훈령이 반복되다가 1715년 교종 클레멘스 11세는 훈령을 통하여 조상제사와 공자 공경의례 그리고 신주를 모시는 것은 미신행위이므로 금지한다고 강경하게 금지조처를 내렸다. 이러한 교황청의 태도를 전해 들은 청나라 황제는 천주교 박해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 훈령은 1742년 재천명되었다. 그리고 1790년 북경 주교 구베아는 한국교회에 유교 제례의식을 금하는 금지령을 전달한 것이다. 교황청의 훈령은 그 이면에 이런 요인이 적용했다. 첫째 서양인의 우월의식으로 동양문화를 경시한 것, 둘째 전통문화에 적응하기보다 천주교 의식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천주교 의식의 통일성을 중시한 것, 셋째 서양식 문화의 의례만이 그리스도교의 정통의식으로 인정한 것, 넷째 수도회간의 경쟁의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윤지충과 한국교회는 금지령의 정당성을 비판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맹종한 것이었는가. 유교 제례를 거부한 윤지충의 답은 이러했다. 그는 유교 신도는 유교 제례를 따르듯이 천주교

신도는 천주교의 제례를 따라야 한다는 신도의 본분을 먼저 말했지만 신앙상으로는 영혼관(靈魂觀)의 이해에 있었다. "육신은 물질적이고 영혼은 비물질적이다. 죽은 이는 영혼밖에 없다. 물질적인 음식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 영혼의 음식은 덕행이다. 따라서 잠자는 분에게 음식을 드리지 않듯이 영면(永眠)한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은 허례(虛禮)요 가식(假飾)이다. 부모에게 드릴 음식은 물질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덕행을 닦아 이름을 날려 영예를 드리는 것이다. 신주(神主)는 목수가 만든 목편이므로 나의 골육과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부모라 부를 수 없다. 나는 사대부(士大夫)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러한 윤지충의 말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효도의 실천 방법인 제사의식을 쇄신하려는 신기운이 일고 있었다. 제사가 의식(儀式)에 너무 얽매어 효도의 근본정신보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의의는 효도의 연장이요, 돌아가신 부모를 살아 계신 분같이 섬기는 상징적인 행위이므로 부모의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지는 부모의 뜻을 정성으로 받드는 것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양심을 개밥으로 내던지는 오욕의 삶은 양지가 아니었다. 윤지충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정성으로 모시는 양지를 효도의 으뜸으로 삼고, 자신을 욕되지 않게 하는 명예로운 삶 곧 양심의 생명을 중요시했다. 윤지충은 지배계층의 최고 가치관인 제사의례를 거부하여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를 통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에 몸을 던진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 있으면 분별력과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종교식민(植民)이 아니었다.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김 진 소 신부

주부사원모집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김 금 주(벨라도)
(주)계몽사/
종로회원 남전주 지사
☎88-8027 야간71-5827

정성을 다하는 조립식의 선구자
경일 조립식 건축
재무부령 254호 허가업체
본사73-1611 FAX75-0161 출장소85-1023
김종진(스테 파노) 김해선(레지미오)
김종선(그레고리오) 김영애(루 비 나)

개업 선물. 행사용품. 광고성냥
위생 젓가락. 상패. 트로피
노 령 기 획
(비사표 광고 전주대리점)
김 배 근(스테파노)
김 현 필(베 드 로)
☎82-6224

각종 인쇄. 명함. 코팅. 스티카
판촉물. 개업기념품 일체
(재털이, 성냥, 볼펜 등)
대 일 인 쇄 소
조 대 일(미카엘)
백 춘 자(레지나)
이리시 남중동1가 35-6(남파. 옆)
☎855-9636

잠 깐!

"신자들의 차례 예식"

오늘은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의 의미는 온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풍부한 곡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가신 조상들과 부모님을 기억하며 제를 드리는 데 있다. 가장 완전한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고 가정이나 묘지에서 온 가족이 드릴 수 있는 차례 예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십자가, 사진, 초(2개), 꽃, 향과 함께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한다.

— 차례 예식 —

1. 성호경.
2. 가톨릭 성가—50, 227, 230번 등.
3. 독서—마태 5,1~12, 요한 14,1~14, 로마 12,1~21.
4. 가장의 말씀.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등 선조들의 말씀을 전해준다.
   ㉯ 가정의 현실과 전망을 얘기한다.
   ㉰ 하느님의 뜻과 선조들의 유훈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사랑과 일치를 나눈다.
5. 큰절—서열순으로 영전, 묘지에 큰절을 드린다.
6.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7. 신자들의 기도(참석자 모두 바친다).
8. 성가—가톨릭 성가 436, 463번 등.
9. 주의 기도—다 함께 바친다.
10. 사랑과 일치의 음식 나누기(차례 음식을 나눈다).
11. 모임 끝 감사기도.
12. 성호경.

교 구 소 식

※ 추석 교회묘지(솔개재) 합동 위령미사 : 9월22일(오늘) 12시 연도 및 미사, 주관—전주지구 묘지관리위원회.

1. 주교님 영명 축일미사 : 9월27일(금) 오전10시 가톨릭센타.
2. 축! 견진 : 9월29일 오전10시 장계 성당.
3. 지정환 신부 회갑미사 : 10월3일(목) 오전10시30분 소양 무지개 가족.
4. 전주교구 어린이 성가 경연대회 : 10월13일 오후1시 해성학교 윤호관.
5. 마니피캇 합창단 창립 10주년 기념 연주회 : 10월5일(토) 오후8시 중앙 성당,입장료-1,000원.
6. 이 땅에 자주와 평화, 민족통일을 위한 기도회 : 9월30일(월) 오후7시30분 전동 성당, 강사—함세웅 신부, 주최—정의구현 사제단.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9월27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박중신 신부.
8. M. E. 소개모임 : 9월28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타 3층 M. E. 사무실.
9. 혼인강좌 : 9월29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타, 회비—5,000원, 문의 85—5098.
10. 성마리아 묵상세미나와 성시간 : 10월10일 오전10시—10월11일 오후5시 서신동 성당, 회비—5,000원, 문의 74—9260.

※ 축! 영명 : 27일(성빈첸시오) 이병호 주교님, 김진철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일터(3) 근무처에서의 건강 관리.

우리의 근무처에 건강에 해로운 요인이 없는지 찾아보고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합시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요십이(946) 김병오

서신동 성당 바자회

일시 : 91년10월17~21일까지
장소 : 숲정이 성당
내용 : 생필품,농수산물,음식, 차,세라믹요와 자기

※ 젓갈류 도·소매합니다.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 소 자 모 임

•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30세 미만,고졸 이상의 미혼 남녀.
삼랑진분원 (0527)52-4241
부산 분원 (051)69—2016
(매월 마지막주일 오후2시)
서울 분원 (02)774—8025
(매월 둘째주일 오후2시)

양재·한복·홈패션
노 라 노 학 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옆
☎ 86-2715
* 냉난방 완비

공 인 중 개 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호출기 012 —681 —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알선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괴통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디또)

결혼·약혼·파티복·남복
한복고려주단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4
(신혼 예식장 골목)
☎ 88-1902

순 꼬리로만 곰탕
'개 시'
전주역전 한양모델하우스 뒷편
서 정 필(요 셉)
김 형 식(마태오)
별미회관 ☎72—5801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묵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오늘은 한가위 대축일 : 하느님의 섭리와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2. 평일미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 미사시간－월, 목, 금, 토요일 새벽 5시30분, 화, 수요일 오전10시30분, 화, 수, 목, 금, 토요일 저녁7시30분. 3. 장우회 성지순례 : 28일 후2시출발, 장소－공주 황새바위. 4. 본당 대청소 : 28일 후1시 전신자는 모두 참여바랍니다. 5. 빈첸시오 : 26일 전9시30분 6. 제대회 : 26일 전10시30분 7. 유아세례 : 28일 후2시30분 8. 날마다 그날의 성경귀절을 한번더 읽고 묵상 합시다. 9. 금주청소 : 남노1,2반 차주청소－남노3,4반

□ 지난주 봉헌금 : 930,320원 □ 교무금 : 1,28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 제대회 : 26일 오전10시30분
2. 병자봉성체 : 27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세례 : 28일 오후7시
4. 빈첸시오회 : 28일 오전10 : 30분
5. 올뜨레아 성지순례 : 29일 오전7시 출발. 장소－절두산. 미리내.
성당청소(28일) : 의덕의거울Pr. 샛별Pr.
금주전례 : 해설－정승훈 독서－박노환씨부부 봉헌－이승로씨 가족
차주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김종성씨부부 봉헌－박남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73,360원 □ 교무금 : 932,8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 미사안내 오전8 : 30분, 10 : 30분 미사만 있습니다.
1. 올뜨레아 : 26일(목)저녁.
2. 성가대 월례회 : 27일(금)저녁
3.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성서읽기 : 갈라디아 1장－6장까지
5. 청소봉사 : 순교자의 모후Pr.
6. 금주전례 : 해살－송봉덕 독서①이옥동 ②송정자 봉헌 : 박복동, 강순용
차주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박시도 ②박경례 봉헌 : 서병철, 김단오.

□ 지난주 봉헌금 : 289,160원 □ 교무금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한가위대축일(추석)! 9월은 순교자성월!
1. 회의 : ①꾸리아－다음주일(9월29일)오후2시.
2. 알림 : ①추석명절미사시간－새벽5시. 오전11시. 저녁8시.
②미사시간변경－10월1일부터 새벽미사－새벽6시, 저녁미사－저녁7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③묘지작업비인상－현재 1기당 80,000원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9월1일부터 10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76,320원 □ 교무금 : 26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경축!!! 본당의날
1. 영세식 : 28(토) 오후8시. 2. 공동체 묵상회 기초과정 : 24일(화)－27일(금) 매일저녁7시30분. 3. 미사시간변경 : 저녁미사 7시. 4. 본당의날 행사 : 1부－미사 및 영세자 환영식 2부－나눔잔치. 3부－구역별 친선게임(배구, 터치볼, 윷놀이) 4부－시상식 및 폐회. 5. 예비자교리반 모집(10월3일시작) : 직장인반－목요일 오후8시. 주부반－금요일 오전11시. 학생반－토요일 오후5시. 일요일반－오전9시.
6. 혼인 성사 : ◉김영섭(율리오)－허정남(율리아)－10월3일 오전11시 효자동 성당
◉김평신(다니엘)－박금숙(마리아)－10월3일 오전12시 전동성당

□ 지난주 봉헌금 : 629,850원 □ 교무금 : 55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주여 연령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소서!"
2. 성전보수 헌금바람.
3. 6대 자모회 간부선출 : 회장－윤봉덕(말지나). 부회장－송금이(안나). 서기－김옥림(세시리아).
4. 성마리아꾸리아 : 다음주 오후2시.
5. 나라를 위한 미사 : 매주 수요일, 아침 저녁미사
6. 다음주는 교무금납부 주일입니다.
7. 젊은이 영세자 환영식 : 9월26일 저녁미사 후
＊ 금주보수비헌금액 : 430,000원 ＊ 현재헌금총액 : 241,846,691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 없음.

□ 지난주 봉헌금 : 1,893,010원 □ 교무금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추석 한가위 대축일을 건전하고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당의날 및 건전성사 행사에 협조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성 빈첸시오 주교님 영명축일미사 : 27일 전10시 센타에서.
3. 봉성체 : 26일 전9시. 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연락.
4. 학생 예술의밤 행사 : 28일 후8시. 학생들은 모두 참석바람.
5.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예선 : 29일 성심학교 많은 응원바람
6. 가정미사 : 26일 후3시. 방미숙(아네스)우성A.P.T5동511호.
7. 회의 :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빈첸시오회－28일 전10시.
올뜨레야 :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2시30분
구내가족휴무 : 23~24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 1,409,440원 □ 교무금 : 8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성지순례 : 장소－헤미성지 준비물－도시락, 미사도구 집결시간－9월29일(일) 오전6시30분 출발－오전7시.
2. 반모임 : 24일(화)오전10시반－성원골드맨션. 오후2시반－신일
3.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무금납부를 부탁드립니다.
4. 본당에 이사오시거나 이사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5. 청소봉사 : 검손하신자의 모후Pr.
6. 차주전례 : 최정순 독서·봉헌 : 노옥임·강경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교정신을 함양하자.
1. 추석합동 위령미사 : 오늘 4대미사중에. 2. 감사－본당의날 행사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3. 감사－본당신부님을 위한 영적 물적 예물주심에. 4. 성지순례 : 11월10일(천진암) 5. 모임안내 : ①꼬미시움－28(토)후3시. ②꾸리아－다음주(수)10시 ③테니스대회－효자우전성당 초청 친선대회. 장소－교육대학 시간－오후2시. 6. 견진성사교리 : 매주(금)후7 : 30(11월17일) 7. 92년 부활반 예비자교리 시간안내 : ①월 09 : 30 ②목 후7 : 30 ③금10 : 40 8. 교회서적을 많이 읽읍시다. 9. 성시간－매주(화)후7 : 30

□ 지난주 봉헌금 : 1,315,070원 □ 교무금 : 1,25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추석합동미사 2. 반기도회준비 모임 : 27(금)10시 미사 후
3. 상개리 공소미사 : 27일(금)저녁 4. 유아세례－28(토)오후2시
5. 성전신축을 위한 첫갈 판매합니다. 6. 통일염원기도회 : 30(월) 오후7 : 30전동 7. 빈첸시오회창립 : 27(금)10시미사 후 8. 본당의날 행사에 협조할 은인구합니다.
차주모임 : 반석회, 요셉회 신축헌금봉헌액 : 200,000원
금주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고영표 ②박춘화 기도①함영철 ②전선자
차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임승동 ②조숙자 기도①정경수 ②최순영

□ 지난주 봉헌금 : 1,023,310원 □ 교무금 : 1,831,000원